데스크시각

김우성

속도전·워룸이 성공하려면

올들어 청와대에 '워룸'(war room·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되고, 대통령이 연일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워룸·속도전이 정국의 키워드로 등장했다.

속도전은 원래 징기스칸의 전술이었다. 9세기 전의 속도전이 최근 주목받는 것은 청와대가 주문하고 여당이 화답하면서부터다. 몽골 속도전의 비결은 유연성에 있었다. 유럽의 기사들이 중무장해 움직일 때, 몽골 기마병들은 기동성을 앞세웠다. 수만명 단위로 이동하는 유럽군과 달리 백명, 천명 단위의 유연한 우회전술로 효과를 보았다. 징기스칸은 수평적 사고, 비전의 공유, 상대에 대한 포용 등 소프트웨어로 속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정면충돌식 전술, 고통만 가중

이명박 대통령도 속도전, 경제비상대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집권 1년차를 촛불진화로 날려버렸고 후반기 레임덕을 제외하면 불과 3년 밖에 남지않은 상황이니 조급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속도전의 시계는 거의 제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경제는 후퇴하고, 2만 달러를 넘어섰던 국민소득도 올들어 그 아래로 추락했다. 용산사태 등 악재만 만들어내 전진은 꿈도 꾸지 못한다.

속도전·경제비상대책이 왜 먹혀들지 않는 것일까. 일거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정면충돌 방식이라는데 1차적 원인이 있다. 징기스칸식 전술이 없다. 미디어 관련법 등 이른바 'MB 개혁법안'을 무조건 한꺼번에 통과시키겠다는 청와대의 고집을 국민들은 수긍하지 못한다. 이를 통과시켜야만 경제가 발전한다는 주장도 억지춘향이다.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대선에서 빚진 보수 부유층에 대한 선물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의 올 첫 라디오 연설에서 나타나듯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협조를 구하기는커녕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이 야당에 있는 것처럼 비난만 쏟아냈다. 그래서 정치평론가들은 속도 운운하며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함에도 수적 우세를 앞세워 밀어붙이기식 리더십으로 일관하고 있어 염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오죽했으면 여당 출신인 김형오 국회의장조차 "정치인생을 마감하더라도 청와대에 의한 청부입법은 하지 않겠다"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 야당과 보다 많이 접촉해야 한다"고 강조했을까.

대통령은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데 일과의 70%를 할애했다는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덕목은 균형감각이다. 좌든 우든 일단 최고지도자가 되고 나면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높은 지지를 받으며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것도 왼쪽으로 집권했지만 무게중심을 중도에 맞췄기 때문이다. 이는 워룸 보다 중요한 시스템의 문제다. 그런데 새해 첫 개각마저 균형감각을 잃고 말았다. 주변사람 챙기기에 급급했고, 대다수 국민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교체를 시늉만 했을뿐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재배치했다. 이래가지고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균형감각 유지, 신뢰회복할 때

지난해 6월 대통령은 민심이 촛불로 타오르자 특별회견을 갖고 '뼈저린 반성'을 했다. "국민을 편안히 못 모신 것을 자책했다"며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새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공교롭게도 여야 원내대표 초청 전국 신문·방송 정치부장 세미나가 열리던 날이라 당시 정치부장이던 필자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그 모습을 지켜봤다.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진정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7개월여가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자책과 새출발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오만과 독선만 존재할 뿐이다. 국민들의 바람을 알면서도 부러 외면하는 듯한 태도가 야속하기까지 하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워룸, 속도전 보다 중요한 게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임을 깨닫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김우성 편집부국장 ws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임명재

같은 변화 그러나 다른 국가

지난 1월 20일 미국에서는 44대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다. 작년 선거에서 전쟁과 테러 그리고 경제위기에 지친 미국인들은 변화해야한다는 오바마 후보의 주장에 공감하여 그를 선택했다. 그는 흑인이었고 정치적으로 신인이었지만 자신이 위기에 빠진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음을 미국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고, 그래서 취임식에는 수백만 명의 인파가 취임식장에 참석하여 서로를 축하했다고 한다. 지금 전 세계는 경제적 침체에 고통을 받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몇몇 나라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과 그 어느 때보다 성황을 이룬 대통령 취임식 뉴스를 보면서 부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집권 정당을 바꾸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했지만 최소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에는 곧 주가가 치솟아 큰 이익이 날 것이니 주식을 팔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 했고, 새해에 들어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대통령의 자신감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답답해졌다. 정부는 그것이 언론 때문이라 한다. 지금 그 누구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절규를 묵살하고 목숨까지 앗아가면서 법치주의를 강화한다고 한다. 강호순과 같은 살인마들이 힘없는 여성을 욕보이고 살해하고 있다. 온통 뉴스는 그 얘기뿐이다. 힘없고 약한 자들에겐 대한민국은 정글이다.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대통령은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누구도 그 법이 나의 편이라고 믿지 않는다. 아이들은 좋은 대학, 특목고, 국제중학교를 가기 위해 가장 파랗고 가장 구름 같은 시간을 학원과 독서실에서 휘발시키고 있다. 여유로운 사람들에겐 이것이 또 다른 희망일 것이다. 경제적 부유함이 그들을 보호해줄 것이고 심지어 그 자녀들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있을 테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의 지하벙커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한다. 핵폭탄이 터져도 안전할 만큼 두꺼운 시멘트로 지어진 지하에서는 결코 국민의 한숨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약사·2005년 12월 수상자〉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이기수

디자인 도시 광주의 미래는 밝다

디자인을 우리말로 풀면 설계, 의장, 도안 등으로 해석된다. 디자인은 De와 Sign의 합성어이다. De는 반대, 축소 등 부정적 의미도 있지만 상세, 완성이라는 뜻도 있다. 유추하면 디자인의 의미는 지나침도 부족함도 아닌 과유불급(過猶不及)과 중용(中庸)이라는 동양철학적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지난 1월 드디어 광주시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완성됐다. 기본계획에는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버스쉘터에서 보도 포장패턴에 이르기까지 10여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이 마련됐다. 광주시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간단히 소개코자 한다. 공공디자인은 차도와 건축물이 위치한 사적 공간과의 사이 즉 가로공간을 1차 대상 영역으로 한다. 스트리트퍼니쳐로 일컬어지는 시설들은 그간 소관 부서별로 필요성에 따라 아무런 기준과 검증 없이 설치되어 왔다. 우리 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이러한 모순점의 자성에서부터 출발한다.

광주시는 공공디자인 정책기조를 조화(Harmony), 인본(Humanity), 고유(Identity)로 설정했다. 여기에 비움·통합·연계·지속의 4대 디자인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비움은 공공시설물의 크기와 수량의 축소, 고저차·경사도 완화, 형태의 단순성, 사용재료의 투명성. 색채의 절제를 추구하며 보행자 중심의 도시 공간구조를 지향한다. 일명 공공시설물 마이너스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10여종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개발한 표준디자인과 매뉴얼은 민주·인권·예술도시로서 역동성을 구현하기 위해 힘있고 곧은 느낌을 주는 예서(隷書)체에서 모티프를 얻어 프레임구조를 적용, 현대적 감각과 유행에 치우치지 않는 디자인을 추구했다.

여기서 자칫 우려되는 것이 있다. 디자인의 획일성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하지만 도로 등 공적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만큼은 다양성이 배제되어야 하고 장식적 요소는 절제되어야 한다는 미니멀리스트(Minimalist)적 사조(思潮)가 최신 선진국의 공공디자인 경향임을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축, 조경, 도시분야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도 매우 중요하다.

도로변에 건축하는 사람들의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 건축물 전면 포장재 하나에서부터 나무 한그루라도 이제는 대충 설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처럼 건축물이 서있는 사적(私的) 공간과 공적(公的) 공간 간의 디자인 품질이 괴리된 나라가 없다는 어느 도시전문가의 지적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이제 용역 성과물은 도시의 공적공간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의 디자인 원칙으로 적용돼 광주만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지니며 정착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시는 문화수도와 일등 인본도시로서 가치실현을 위해 마련된 계획을 한걸음 한걸음 추진해 나갈 것이다.

〈광주시 도시디자인 과장〉

사설

단돈 4만원 때문에 살인하는 섬뜩한 세상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50대 여교수 살해 사건의 동기가 보일러 수리비 미수금 4만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광주 서구 농성동 주택에서 모 대학 교수 김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보일러 수리공 박모씨는 10일 경찰에서 "남은 수리비 4만 원을 못 받은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고 한다. 단돈 4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니 그야말로 무서운 세상이다.

며칠 전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여주인 살해 사건 역시 인명경시 풍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다. 지난 3일 일용직 노동자인 주모씨가 광주시 서구 광천동 S노래방에서 주인 김모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주씨는 김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자 살해했다. 더욱이 범인 주씨는 김씨가 업소용 냉장고에 깔려 사고사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냉장고를 바닥에 쓰러뜨려 놓기도 했다. 어쩌면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근래 우리 사회에는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흉악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강호순의 엽기행각과 지난해 10월 시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논현동 방화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고통스러운데 범죄 공포마저 겹쳐 시민들의 불안감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흉악 범죄의 배경에는 물질만능주의와 인명 경시 풍조가 깔려 있다. 문제는 이런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마땅히 대처할 선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고귀한 인명을 해치는 범죄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물질만능주의와 인명경시 풍조가 흉악범죄들을 잉태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광주시장 관사 확대이전 지금은 때 아니다

광주시가 국제행사에 대비해 시장 관사를 영빈관 기능을 갖춘 곳으로 확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5억~7억원을 들여 외부 귀빈이나 국빈급 인사를 초청해 만찬을 할 수 있는 영빈관 형태의 빌라를 구입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오는 4월로 예정된 국제스포츠연맹(FISU) 하계 U대회 실사단 방문과 10월에 열릴 세계광엑스포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 영빈관 기능을 갖춘 시장 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16개 시도 가운데 영빈관을 갖춘 지자체가 5곳에 이르고 지난 1998년 매입한 관사(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협소하다는 것도 한 이유다.

물론 광주시의 시장관사 확대 이전론은 나름대로 타당한 면이 없지 않다. 광주시가 국제도시로 발돋움 하고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많은 국제행사를 치러야 하고, 그 때마다 주요 국내외 인사를 초청해 만찬도 베풀어야 한다. 그런데 변변한 만찬장소 하나 없다는 것은 문제다.

하지만, 지금은 이전할 때가 아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지역경제가 바닥을 기고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관사를 고급빌라로 이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특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 해야할 단체장이 수억 원을 들여 호화판 논란까지 빚어가면서 관사를 옮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관사가 협소하다는 변명도 구차하기 짝이 없다. 현재 관사로 사용되고 있는 198㎡(60평)형 아파트가 작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또한 일부 특권층만 사는 호화빌라로 이전하는 것 역시 시민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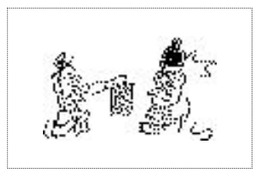
광주시는 시장 관사 확대 이전 검토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회생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도 모자랄 판이다. 관사 이전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無等鼓

옐로우 카드

2002 한일월드컵 등의 영향으로 축구가 우리 일상생활과 가까워졌으나,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의 유래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두 카드는 교통신호등의 노란불이 '주의', 빨간불이 '정지'를 뜻하는데서 영국 축구심판 케네스 아스톤이 착안했다.

1915년 태어나 지금은 세상을 뜬 아스톤은 1962년 칠레 월드컵에서 칠레-이탈리아 전의 주심을 보게 됐다. 이 경기는 이탈리아의 한 기자가 칠레 여자들의 미모와 도덕성이 형편없다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양국 선수들간에 싸움이 붙어 '산티아고의 전쟁'이란 별명이 붙었다. 아스톤은 경기가 험악해지자 이탈리아 선수 두명에게 퇴장명령을 내렸고, 수많은 몸싸움을 뜯어 말려야 했다.



1966년에도 아스톤은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당시 FIFA 심판위원회 위원이던 아스톤은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와의 8강전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이 경기는 다음날 "심판이 잉글랜드의 찰톤 형제에게 돈을 걸었기 때문에 잉글랜드팀을 봐줬다"는 폭로기사가 나오면서 엄청난 파문에 휩싸였다.

축구계의 고질적인 판정시비에 고민해온 아스톤이 영국의 켄싱턴하이 거리를 지나다가 교통신호에 걸렸는데, 점멸하는 노란불과 빨간불에서 힌트를 얻어 두 카드를 생각해낸 것이다. 이후 카드는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 유래야 어찌됐든, 세상에 나온지 40년도 채 넘지않은 카드가 축구장이 아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사기업은 물론 공무원 조직, 음주운전, 심지어 가족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가장 등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카드의 위력은 더욱 탄력을 받을 듯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만의 리그'에 몰두한 채 물가, 일자리 창출, 기업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외면하고 있는 현 정부가 카드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종태 사회2부장 jtlee@kwangju.co.kr

음식점, 수익 우선하기보단 품질 신경 써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양식을 중요시해왔다. 보양식중에 대표적인 음식을 꼽으라면 당연히 사골곰탕이 우선으로 꼽히며 꼬리곰탕, 우족탕, 설렁탕 등이 대표적인 보양식이다.

하지만 솔직히 현재 우리나라 식당에서 파는 각종 뼈 곰탕류는 거의다 수입소 뼈라고 보면 된다. 그 이유는 이윤을 많이 남겨먹으려는 도매업자와 식당 업주들이 한우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식당이 천원 어치 팔아서 이윤을 100원만 남겨도 충분한데 2천원 또는 3천원 이상 남기려는 욕심을 부리면서 "한우가 비싸서 그렇다"는 핑계만 댄다. 그러나 더욱 억울한 점은 이렇게 파는 수입뼈 곰탕을 전부 다 한우라고 속여서 판다는 것이다. 한우 부산물인 뼈가 팔리는 양을 보면 알수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한우업계가 사골이나 꼬리 등 뼈 부산물의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음식점이 물론 수익을 우선으로 해야겠지만 무턱대고 값싼 재료로 찍어내듯이 먹거리를 만들어 낸다면 머지않아 소비자들의 냉정한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수입 뼈로 만든 곰탕을 먹는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그 파장과 책임이 음식점에 되돌아 올 것이다.

음식은 정성이고 마음이다. 수입소 뼈가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한우의 깊은 맛을 우리 국민들이 잃지 않도록 더 양심적으로 영업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한우 뼈의 소비가 더 늘어나기를 고대해본다.

▲유병희·광주시 북구 신용동

영수증 발급, 필요한 사람만 발행 했으면

요즘은 가까운 수퍼는 물론 할인마트, 백화점까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과 함께 받는 영수증을 끊어준다. 그런데 영수증이 전국 할인마트, 편의점, 백화점서 매일 24시간 발행되는 양이 얼마나 많은가. 종이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직불카드의 사용도 증가하면서 영수증 발급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다.

거리를 걷다 보면 길거리에 버려진 영수증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심지어 고속도로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이 날아다니는 장면을 종종 목격한다. 이렇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영수증의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고 거리를 더럽히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

포인트 카드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현금출금기 영수증의 경우는 금액만 확인하고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길거리에 버려질 영수증이라면 차라리 발급받지 않는 것이 소중한 자원도 아끼고 개인정보와 환경까지 보호하는 일석삼조의 지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 기계적으로 마구 발행해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영수증을 굳이 무작정 발행할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만 발행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애꿎은 나무가 베어지는 양을 그만큼 줄여 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다운·광주시 남구 칠석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